



아시아 챔피언스 컵 첫 우승 쾌거 '금의환향한 김학범호' 대한민국 U-23 축구대표팀이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26일 '2020 아시아 축구 연맹(AFC) U-23 챔피언스 컵'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하여 이 대회 사상 첫 우승 및 2020 도쿄 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냈다.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것...런던 동메달 넘고파”

김학범 감독, AFC U-23 챔피언스 컵 우승 후 금의환향

“선수들, 부상없이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 나서주길”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이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금의환향이었다. 대표팀은 지난 26일 오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20 AFC U-23 챔피언스 컵 결승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1:0으로 승리,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14년 창설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AFC U-23 챔피언스 컵에서 한국이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학범 감독은 4강을 통과하면서 미리 확보해뒀던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포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쾌거를 올렸다.

김학범 감독은 “우승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쁜 것 아니겠는가”라고 웃은 뒤 “선수들이 잘 따라준 결과다. 선수들과 힘을

합쳐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더 값진 것 같다”고 기쁨을 표했다.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것이지만 지금의 결과는 마침표가 아니다. 이제 김학범 감독은 중국의 지향점인 2020 도쿄올림픽을 향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뭘 주문한다고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그저 부상 없이,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에서 나서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 뒤 “선수 선발을 비롯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학범 감독과의 일문일답.

-금의환향한 소감은.

▶우승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 아니겠는가. 선수들과 힘을 합쳐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더 값진 것 같다. 돌아보면 매 경기 고비였다. 다행히 선수들이 코칭스태프가 바라는 방향으로 굉장히 잘 따라주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

-4강을 앞두고 긴장했는지.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경기였기에) 긴장이 많이 된 경기였다. 승패에 따라 (본선에) 편하게 갈 수 있느냐(3/4위전에서) 승부를 펼쳐야 하느냐 하는 갈림길이었기에 내색은 안했지만 긴장했다. 선수들도 나와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이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다.

-대회 내내 로테이션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가지다. 하나는 날씨 때문에 실시했다. 무더운 날씨에서 3일에 한 번씩 경기해야 했다. 또 숙소와 훈련장의 거리도 멀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 선택을 내리지 못해 실패한 나라가 많았다. 또 다른 이유는, 선수들 모두 실력이 고르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팀에는 특출한 선수는 없어도 열심히 하는 선수는 많다. 이들 중 누가 나가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덕분에 과감하게 바꿔 기용할 수 있었다.

-도쿄올림픽 엔트리 선발 기준은.

▶정하지 않을 것이다. 기준을 정해 놓으면 유연성이 떨어진다. 내가 필요한 선수를 선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소속팀 경기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자원이면 내려간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 팀에 필요한 선수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와일드카드에 대한 견해는.

▶이건 좀 기다려달라. 올림픽 조 편성이 끝나야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상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선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려야 주릴 수 있다. (조편성이 확정되는) 4월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게임 때 썼던 와일드카드 3명도 후보에 들어가나.

▶한국 선수는 모두 해당이 된다. 일단 지금 우리(U-23대표팀) 선수들도 열심히 한다. (선수선발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런던 올림픽의 동메달 결과를 넘고 싶다고 했는데.

▶우승 후 태국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이 날아들어서 그렇게 답했는데, 변함없다. 어차피 목표는 잡아야 하고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꼭 넘어서고 싶다.

-선수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무언가를 주문한다고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다만 부상을 당하면 많은 것이 꼬일 수 있다. 그저 부상 없이 소속팀에서 많이 뛰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국제스포츠 ‘우한폐렴’ 직격탄

올림픽 예선 장소변경에 무관중 경기도

스포츠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직격탄을 맞았다. 감염 위험이 커짐에 따라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종예선의 장소가 변경되거나 무관중 경기도 결정되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26일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ACL) 플레이오프 경기를 비공개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AFC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중국축구협회와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상하이 상강(중국)과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의 ACL 플레이오프가 관중 없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하이 상강과 부리람전은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펼쳐지는데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내달 11일부터 열리는 ACL 본선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아직까지 확정지는 아니지만 AFC는 일정 및 장소 변경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팀 중 ACL 본선에는 상하이 상강 외에도 베이징 궈안과 상하이 선화, 광저우 헝다 등 4개 팀이 출전한다.

이밖에도 각 종목 2020 도쿄 올림픽 최종예선이 ‘우한폐렴’의 직격탄을 맞으며 비상이 걸렸다. 중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올림픽 예선 일정 등이 잇따라 변경되고 있다.

먼저 다음달 3일부터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예선 B조 경기장소는 우한에서 난징으로 변경됐다가 사태가 확산되자 호주 시드니로 다시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2월 3일부터 예정됐던 도쿄 올림픽 복싱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은 전격 취소된 뒤 3월 요르단 암만으로 변경됐다.

또한 중국 광둥성에서 펼쳐질 예정이던 도쿄 올림픽 여자 농구 최종예선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바뀌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스케줄이 꼬이면서 중요한 올림픽 예선에 맞춰 몸 상태를 끌어 올렸던 선수들도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고 있다.

뉴스1



“류현진, 토론토 1선발

말을 것...김광현은 5선발”

류현진(33)이 새로운 소속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1선발 자리를 꿰찰 것이란 현지 매체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27일(한국시간) 30개 구단의 2020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전망했다.

토론토의 경우 류현진이 1선발로 나서고 그 뒤를 테너 로이크, 맷 슈메이커, 제이스 앤더슨, 야마구치 차레로 선발진을 맡을 것으로 봤다.

MLB.com은 “토론토는 이번 오프시즌 선발진 강화를 통해 많은 변화를 꾀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류현진을 영입하면서 진정한 에이스를 얻었고 로이크와 앤더슨을 데려와 선발진에 안정성을 더했다”고 평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에 합류한 김광현(32)도 선발 자리를 맡을 것으로 봤다.

MLB.com이 예상한 세인트루이스의 새 시즌 선발 로테이션은 잭 플래허티, 마일스 마이클라스, 다코타 허드슨, 아담 웨인타이트, 김광현 순이다.

MLB.com은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선발 복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세인트루이스에 남은 유일한 문제는 ‘누가 5선발 자리를 맡느냐’다”라며 “만약 마르티네스가 선발을 맡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과 2년 계약을 맺어 선발자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팬 열기 다시 찾아오겠다”...안치홍 롯데자이언츠 입단

“시즌 전까지 완벽한 몸상태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안치홍이 28일 롯데자이언츠 입단식을 가지고 거인군단의 일원이 됐다. 롯데자이언츠는 이날 롯데호텔부산에

서 성민규 롯데 단장과 이예량 에이전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치홍의 입단식을 열었다.

안치홍은 이번 FA시장에서 2009년 이후 10시즌(군 복무 제외) 동안 몸담은 KIA를 떠나 롯데와 2+2년 최대 56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날 안치홍은 “롯데 유니폼 입고 이 자리에 서니 기쁘고 설렌다”며 “롯데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가 되도록 그동안 안팎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지난 11년 동안 한결같이 응원해준 KIA팬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팬들의 사랑이었다”고 KIA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올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컨디션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기존 훈련 방식이 벌크업에 치중된 나머지 오히려 기량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몸을 만든 거 같다”며 “올해부터는 신체 밸런스를 갖춰서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있다. 시즌 전까지 완벽한 몸상태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생소한 2+2 계약

에 대해 안치홍은 “계약이 발표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도전이었다”며 “저에게는 도전할 수 있고, 한번 더 증명할 수 있는 해내야 하는 계약이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기 나름인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감은 충분히 있다”며 “이제 더 전성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다”고 향후 계약연장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롯데는 안치홍 영입으로 취약 포지션으로 꼽혔던 2루 보강이 확실하게 이뤄졌다는 평이다. 안치홍은 KIA 시절 2루수 골든글러브를 3차례(2011, 2017, 2018) 수상한 바 있다.

안치홍은 “롯데자이언츠는 팬들이 열정적이고, 원정팀에서(롯데가)성적이 낮을 때 팬들의 열기도 느껴왔기 때문에 그 열기를 올해 다시 가지고 올 생각이다”고 자신했다.

끝으로 “롯데자이언츠는 선수 구성이 굉장히 좋고 팀이고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해내야 할 때도 있지만, 좋은 선수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서 좋은 시즌을 보내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뉴스1